

KOBA 2016
REVIEW

전시장 A홀, 조명장비 동향

조명 장비에 있어서는 전시되었던 텅스텐 할로겐 장비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 Dimmer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이유 뿐 아니라 이제는 바야흐로 LED를 사용하고 또 사용해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아시다시피 LED 조명장비는 사용하는 전력량도 적고 Dimmer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이점이 있다. 아울러 발열량도 적어 뉴스를 비롯한 모든 스튜디오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보다 편안한 환경에서 본인의 퍼포먼스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색온도를 조정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았으며 문제가 되었던 연색성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져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전망이다 [그림 1-2, 전시장 분위기].



그림 1



그림 2

Moving Light, Follow Pin Spot, Conventional Type 등 전시된 장비

의 많은 부분이 LED 타입이었던 것을 볼 때 LED가 대세는 대세인 것 같다[그림 3~6].



그림 3



그림 4



그림 5



그림 6



그림 9



그림 10

다만 LED Light의 경우 Moving Light는 물론 Conventional Light를 대체하는 용도일지라도 필연적으로 전원장치를 가지게 되는데 교양이나 쇼 스튜디오보다 상대적으로 거친 스튜디오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드라마 스튜디오의 경우 전원장치의 내구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Dimmer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특성상 불가피한 DMX 신호선의 처리가 애로점으로 작용하여 도입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그림 7~8]. 또한 기존에 계속 스튜디오용 Conventional Light를 생산해 오던 외국의 대형 제조사가 아닌 국내의 신생 업체의 경우 Batten 시스템을 사용하는 스튜디오 여건 하에서는 요크, 조정 고리, 기어장치 등을 포함하는 등기구의 내구성 측면에서의 개선도 많이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Single Camera로 촬영하는 야외촬영이나 스튜디오 세트 촬영의 경우 이미 Must have item이 되어버린 LED는 검증된 솔루션으로써 그 입지는 계속 높아질 것 같다[그림 9~10].

Conventional Light 타입의 LED Light의 Beam Area 조정(Focusing)에도 두 가지 방식이 보였다. 직선 형태[그림 11~12]나 자바라처럼 주름진 형태[그림 13~14]를 가진, 렌즈가 움직이는 방식 외에 기존의 Conventional Light처럼 발광 소자와 반사경 어셈블리가 같이 움직이는 방식[그림 15~16]도 선보였다.



그림 11



그림 7



그림 12



그림 8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

무빙라이트의 경우 Hybrid 타입이 눈길을 끌었는데 All-in-one Hybrid라고 하여 Beam, Spot, Wash 모드를 모두 갖춘 Martin 사의 Moving Light[그림 17~18]도 있었고, 과거에 전설적인 Moving Light로써 필자가 4년간 오퍼레이팅을 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던, 그 Servo Motor의 강력함으로 Color, Gobo, Beam, Iris 등의 Change Speed에 매료되었던, 그리고 필립스에 인수된 후로는 신제품 출시가 뜸했던 Vari 사의 Wash Light[그림 19~20]를 볼 수 있어 반가웠다.



그림 17



그림 18



그림 19



그림 20

Sangwha라는 업체에서는 무빙 디스플레이[그림 21]를 선보였고 Rigpro라는 제조사에서는 Rigging 장비[그림 22~24]를 전시하였는데, 많이 봐서 익숙하긴 했지만 시연도 해 보았다.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

또한, Strobe 효과를 위해 많이 사용되었던 Martin 사의 Atomic-3000이 LED 버전[그림 25~26]으로 새롭게 출시되었다. Broad Type Wash로써 RGB Color로 공간 페인팅도 가능하고 Strobe는 White Strobe만 가능하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섬광효과는 White Strobe를 사용하고 Strobe가 없을 때의 공간 페인팅으로 RGB 컬러를 사용하면 여성 걸 그룹이나 남성 그룹(또는 남녀 Solo)의 Dancing 곡의 전주 및 간주 시의 Lighting Performance 용으로 또 하나의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인다.



그림 25



그림 26

Media Server는 Hippotizer[그림 27]가 유일하게 전시를 했던 것 같다. 조명과 영상 콘텐츠의 결합 및 하모니로써 최근 부각되고 있는 Media Server 전시가 내년에는 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그리고 국내 업체로서 교회 등의 건축물 조명과 실내조명 및 옥외 경관 조명 관련 업체들[그림 28~30]의 전시를 사진으로나마 소개해 본다.



그림 27



그림 28



그림 29



그림 30

이 밖에도 실사체인 Cube[그림 31]에 프로젝터 3대를 투사하여 전시한 제품이 있었는데, 보이는 3면의 영상을 컴퓨터 프로그램상에서 조정[그림 32] 및 왜곡[그림 33]시킬 수 있었다. 또한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에서나 봄직한 소형 로봇 타입의 무빙라이트[그림 34]도 볼 수 있었는데 콘서트 등에서 하나의 마스코트로써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림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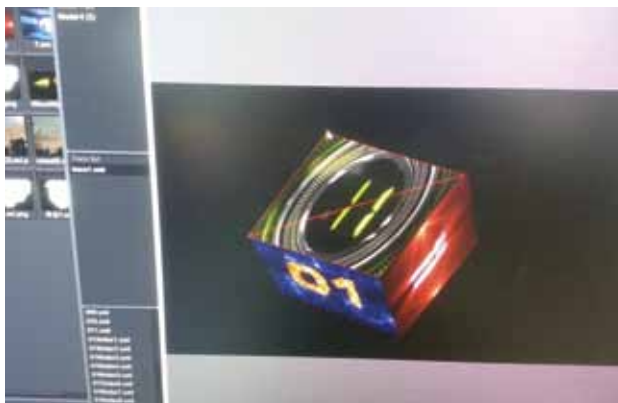


그림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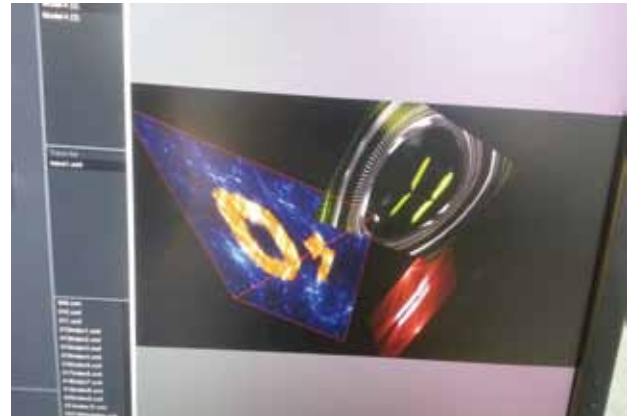


그림 33



그림 34

지금까지의 내용은 1층 Hall A에 전시된 조명 장비들과 관련한 소개 글이다. 사진, 동영상, ENG 촬영 등을 위한 소형, 중형, 그리고 초소형 탁상용 LED 장비들은 3층 Hall C와 D에 전시되어 있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마치 찜질팩을 연상시키는 Flexible LED 등 다양한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다만 촬영을 하지 못하여 사진으로 게재하지 못했다. 인터넷 블로그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조명장비도 점점 발전해 가는 것 같다. 이를 활용하여 좋은 영상을 구현하는 것은 User의 몫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풍성한 KOBA 2017을 기대해 본다.